돈점 논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박태원 교수, 연구서 〈돈점 진리담론〉 발간

1981년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를 통해 보조 지눌 스님의 '돈오점수(頓悟漸修)'는 '지해(知解)'이며, 정법의 장애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이로써 현대 한국불교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인 '돈점 논쟁'이 시작됐다.

대부분 돈점 논쟁의 핵심은 '단박에(頓) 깨달음'과 '순차적으로(漸) 깨달음'으로 귀결된다. 또한 깨달은 뒤에는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들도 있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간적인 분별은 돈점의 수행론적 초점이 아니며, 시간보다는 '범주/지평/계열의 통째적 전의'로 읽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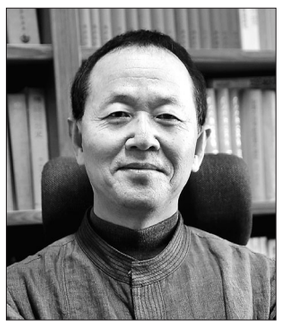
박태원 울산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최근 발간한 연구서 〈돈점 진리담론〉를 통해 돈오 사상의 시작부터 돈점 논쟁의 핵심 등을 지눌-성철을 중심으로 살피고, 돈점 논쟁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담론을 제시해낸다.

우선 박 교수는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를 통해 지눌 스님의 '돈오점수'를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비판의 중심에 '해오(解悟)'가 있음을 설명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돈점 논쟁 연구들이 '지눌의 돈오는 화엄적 해오'라는 명제에 국한돼 있음을 지적하고, 이 명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박 교수는 "(지눌 스님의) 돈오점수와 화엄 교학의 대비 및 융합은 선교일치 사상의 이론적 토대와 체계 마련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화엄 교학에 의거해 돈오점수의 내용을 구성하고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처럼 돈오점수에 대한 성철 스님의 비판으로 전개된 돈점 논쟁은 핵심 논점을 놓고 혼란이 존재한다. 핵심 논점을 둘러싼 모호함과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눌의 돈오를 화엄적 돈오와 선문 · 정학적 돈오,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눌의 언어 속에는 두 유형이 혼재한다"고 역설한다. 이어 "지눌 스님의 돈오가 두 지평으로 구별해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을 인정하면 돈점 논쟁을 다루는 틀과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눌 · 성철 돈점론 비판적 고찰
'혜학 · 정학적' 돈오, 新독법 제시
"이해 · 마음행법 차이담론 식별
그간의 불화 · 오해 해소 가능해"
현재 수행 풍토에 대한 비판도

또한 마지막 장에서 소개된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 · 선 수행 담론'에서는 일체의 분증(分證)을 돈오에서 배제하려는 성철 스님의 태도가 '돈오 범주에 관한 담론'임을 추론하고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론은 선종 구성원들이 보이는 병리현상에 대한 치유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혜학 · 정학적 돈오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유형 구분론과 돈오 범주 담론은 돈점 논쟁의 새로운 독법을 구성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면서 "돈점론을 둘러싼 불필요한 불화와 오해들은 이 두 담론유형의 식별적 이해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현재 선문(禪門)에 대해서 '언어적 능력'이 결핍돼 있음을 지적한다. 박 교수는 "간화문의 언어가 대변하게 된 선종의 수행론은, 마음방식 행법의 편향성에 노출돼 있다"면서 "선종의 언어 적대적 분위기는 장기간 누적됐으며, 현대 선종 구성원들에게까지 계승된 언어 부정적 태도는 아직도 충분히 극복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선종의 마음방식 행법 전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해방식 행법의 내용과 역할을 충분히 탐구해 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 탐구, 이해의 계발과 적용, 연기적 성찰과 사유능력의 계발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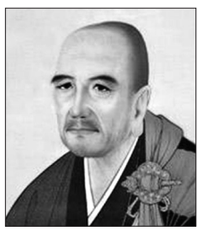
원효와 화성 당성 관계 조명 '주목'

불교문인協 · 화성문화원 4월 22일 학술 발표회

원효 스님과 화성 당성(당항성)의 관계를 조명하는 학술 발표회가 마련된다. 이날 학술 발표회에서는 원효 스님의 해골물을 마신 오도지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문인협회(회장 선진규)와 화성문화원(원장 고정석)은 4월 22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하는 제1회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원효 사상과 화성 당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선진규 한국불교문인협회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원효 오도지 문제와 화성 당성(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원효의 화회(和會)사상과 평화교육(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 △원효 설화 그리고 문화콘텐츠화(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논평자로는 정희경(동국대 강사), 정성준(티베트대장경역경원 연구교수), 정진원(동국대학교 강사) 등이 참여한다.

한국불교문인협회와 화성문화원은 "화성 당성은 사적 제 217호로 지정된 곳으로 원효 스님이 중국 유학길에 해골물을 마시고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깨달음을 얻은 불교사적으로 매우 의미 깊은 곳"이라며 "화성의 역사 인물과 향토유적, 향토사료 등을 조사 발굴하고, 대중화하기 위한 학술발표회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4차산업시대, 종교교육의 역할은?

한국종교교육학회, 4월 21일 춘계학술대회

눈 앞에 도래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종교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세곤)는 4월 21일 오후 1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4차산업혁명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상봉 LG전자 사장이 '4차산업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이날 이 사장은 4차 사업의 특징과 그에 필요한 인재 육성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로는 △VR 및 AR의 명상교육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강형철) △4차산업혁명과 불교윤리(장성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교교육 방향과 필요성(김남희) △사물의 인공지능과 인간의 종교적 지능(전철) △4차 산업혁명시대 사물인터넷의 관계 고찰(염승준) 등이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이필원(동국대), 김동한(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 김영철(동국대), 이원일(영남신학대), 장진영(원광대) 등이 참여한다.

김세곤 한국종교교육학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는 가성과 물리세계, 객체와 주체 등을 새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향후 종교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승보 · 조사신앙은 어떻게 형성됐나

중승대 · 정토학회, 25일 세미나

승보신앙과 조사신앙의 형성과 전개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앙승가대(총장 원행)와 한국정토학회(회장 정인)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5일 중앙승가대에서 '승보신앙의 재조명'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삼보와 승보신앙의 소고', 경성 스님(해인사 율주)의 '예경에 나타난 승보신앙', 황인규(동국대)의 '삼대화상(지공 · 나옹 · 무학) 신앙', 김호귀(동국대 불교학술원)의 '선종에서 조사신앙의 유형과 그 특징', 법상 스님(중앙승가대 외래교수)의 '정토의 조사신앙' 등이 주제 발표된다.

정토학회는 "이번 세미나는 불교의 정신적 지주인 불 · 법 · 승 삼보 가운데 하나인 승보신앙에 대한 위치를 집중적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조사신앙도 함께 고찰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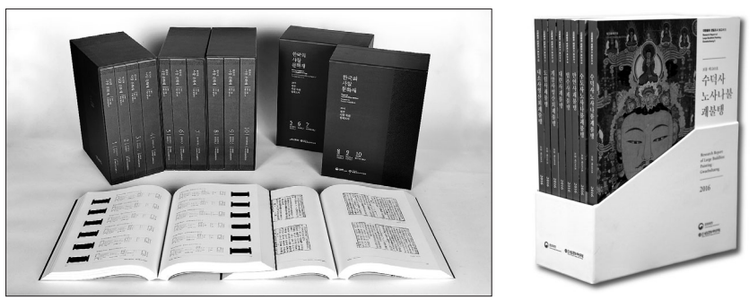
사찰 괘불탱 · 목판 모든 것 '한눈에'

불교문화재 조사 국책사업 관련 보고서 발간 잇달아
성보문화재硏 대형불화 조사
불교문화재硏 목판 일제조사

사찰에 소장된 괘불탱과 기록문화유산인 목판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잇달아 발간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는 지난해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시행한 경남 · 경북 사찰 목판 일제조사에 대한 보고서인 〈한국의 사찰문화재-2016년 전국 사찰 일제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 통영, 남해, 고성, 산청, 창녕, 하동), 경상북도(경산, 성주, 청도) 소재 18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판 4,201점에 대한 조사내용과 강화 전등사, 안성 칠장사, 서산 개심사에 소장된 중요 목판 14종 425판(총 3,996장)에 대한 인출내용을 수록했다. 조사 결과 25점의 목판을 새롭게 조사했으며, 기존 조사 내용의 오류를 수정했다. 이를 통해 15건 399점의 목판을 판종별 통합 및 재분류했다.



문화재청과의 공동 조사로 만들어진 불교문화재연구소의 '2016 전국사찰목판일제조사 보고서'〈사진 왼쪽〉와 성보문화재연구소의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사진 오른쪽〉

올해에는 경상북도(경주, 포항,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예천, 울진, 의성) 지역의 19개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3,052점의 목판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완료한 목판 가운데 중요 목판을 선별하여 인출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찰 소장 목판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지현)은 사찰 괘불탱에 대한 2016 조사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의 '대형불화 정밀조사'는 문화재청과 10년 동안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예신 수덕사 노사나불괘불탱(보물 제1263호) △부안 내소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68호) △부안 개암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69호) △영천 수도사 노사나불괘불탱(보물 제1271호) △곡성 도림사 괘불탱(보물 제1341호) △화순 만연사 괘불탱(보물 제1345호) △군위 법주사 괘불탱 △예산 대련사 괘불탱 등 보물 6건과 비지정 2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보고서는 8곳의 조사 결과를 수록했다.

성보문화재연구원은 "'대형불화 정밀조사'는 복원 · 보수에 필요한 분석정보, 예방적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구축 등 종합적 자료 획득을 목표로 한다"면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괘불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보존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관음신앙,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불교문예硏, 4월 28일 학술대회

관음신앙의 다양성을 논의 · 이해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문예연구소는 4월 28일 오후 1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호운각에서 '관음신앙의 다양성 이해'를 주제로 1학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의 '관음보살의 천태선적 이해', 황수경 불교상담개발원 이사의 '관음보살의 상담심리학적 해석', 강은애 박사(선리연구원)의 '관음보살의 종교학적 이해', 박수호 박사(중앙승가대)의 '숭산 행원의 관음선종', 박재현 동명대 교수의 '관음사상과 공유사회의 만남' 등이 주제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서광 스님(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 신규탁 연세대 교수, 이병욱 고려대 교수, 원영상 원광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법당의 앰프, 스피커, 마이크 일부교체 및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진단, 설치하는 관계로 일주일에 사찰 3곳만 방문 가능하오니, 초파일을 앞두고 미리 상담, 출장 예약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대출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신상품 ● USB · MP3 PLAYER



보급가 : 145,000원(USB칩 포함)
엠프 스피커 포함 : 235,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자체에서 소리조절 오래된 엠프와도 잘 맞습니다.



● CD기기 (5개연속사용)



【특별판매】 가격 : 350,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